

F-22 스텔스 전투기 日 구매 논란 확산

일본의 차세대 첨단 전투기 F-22 랩터 구매 의향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구마 후미오 일본 방위상은 지난달 30일 미일 외교·국방장관 4자회담에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에게 일본의 차기주력전투기(FX) 선정 계획과 관련, F-22의 구매 의사와 함께 미국의 제5세대 전투기 전반에 대한 정보제공을 공식 요청했다고 정통한 한 소식통이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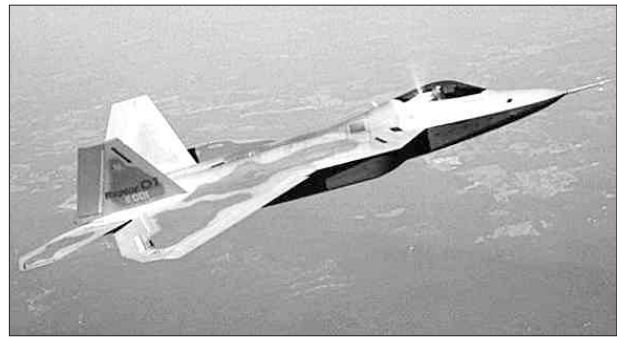
하지만 조지 부시 행정부와 공군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일본은 미국이 판매에 소극적일 경우 경쟁국인 유럽쪽으로 구매선을 돌리겠다고 부시 행정부를 은근히 압박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 의견 대립=미 공군과 록히드 마틴 등 방산업체측은 대체로 일본에 F-22를 판매하는데 긍정적이다.

록히드 마틴은 미 정부가 F-22 생산대수를 당초 계획의 절반으로 줄임으로써 비용 압박을 받고 있어 F-22 해외판매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계획이고, 공군도 비용절감을 위해 여기에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라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반면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최고실무자인 와일더 백악관 NSC 동아시아 보좌관이 중국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다는 게 워싱턴의 소식통들과 워싱턴 타임스 등 언론 보도의 전언이다. 일본에 차세대 전투기 판매의 입장을 공식 발표했던 와일더가 이처럼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선 것은 최근 중국과 북한, 한국

南·北·中 “주변국 안보 위협” 강력 반발
日 “안 팔면 유로파이터로 대체” 美 압박
英 방위국 “F-16 30배, F-15의 12배 성능”



등의 반발을 고려한 것이라는 게 우리 당국자의 설명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국이 수출에 제약이 많은 F-22 보다는 이보다 함등급 낮은 보잉사의 F-18 호넷 판매를 추진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일본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적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중, F-22 알레르기 반응 이유=중국 공산당기관지 인민일

보가 발행하는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최근 “일본이 주변의 안보를 직접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북한 노동신문도 지난 30일 일본의 F-22 구입 계획을 “재침의 위험신호”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중국의 이 같은 반발은 러시아와 중국이 보유중인 최신에 전투기보다 성능이 월등히 뛰어난 F-22를 100대나 구입할 경우 동북아 군사력 균형을 일거에 깨뜨릴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영국 방위평가연구원(DERA)은 F-22가 한국 공군 주력기인 F-16의 30배, F-15의 12배, 러시아 최신에 Su-35의 10배 성능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

◇日, 유로파이터와 접촉=美 경쟁심 유도(?)=일본측은 지난 달 30일 미일 4자 국방·외교장관 회담에서 F-22 랩터가 일본의 차기주력전투기 후보인 점을 강조하며 미측에 관련법의 적용을 완화해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한편으로 미국과 경쟁관계인 영국 방산업체인 BAE 시스템스측에 현재 개발중인 EF-타이푼 기종 구매 의사를 타진했다. 유로파이터는 영국과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등 유럽 4개국 합작 방산업체로 미국 보잉과 록히드 마틴 등과 협력 또는 경쟁관계에 있다.

일본의 이 같은 태도는 의회 규정에 묶여 있는 미국의 F-22 조기 판매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워싱턴=연합뉴스

比 젊은 엄마 1만명, 동시에 젖먹이기



필리핀의 젊은 엄마들이 2일 마닐라 남쪽 파라나케의 한 스포츠 센터에서 동시 수유(授乳) 세계기록을 깨뜨리기 위해 자기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있다. 조직위는 이날 기록 도전에 전국의 탁아소와 병원 등에서 1만여명의 엄마들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로이터=연합뉴스

부시 ‘이라크 전비법안’ 거부권 행사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일 이라크 주둔 미군을 오는 10월1일부터 철수를 시작, 6개월안에 철군을 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1천240억달러의 이라크 전쟁비용을 추가로 승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비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부시 대통령이 6년간 재임하면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작년 6월 출세세로 연구지원 확대법안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이라크전 승리 선언 4주년을 맞아 이라크 등 중동지역에서의 군사활동을 종결하는 플로리다주 템파의 미 중부군 사령부를 방문하고 백악관으로 돌아온 뒤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TV를 통해 성명을 발표했다.

부시 대통령은 성명에서 “(이라크 미군) 철군시한을 정하는 것은 패배의 날자를 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법률안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부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 법안은 의회로 돌려보내져 재의결될 예정이며 참석자 가운데 3분의 2이상(상원 67표, 하원 290표)



미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 해리 레이드 상원의원(가운데)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맨 오른쪽) 등이 지난 1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미군 철수 촉구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찬성을 얻어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무효화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상원에서 적은 표차로 통과될 경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기 어려울 것이 확실시 돼 사실상 폐기됐다.

부시 대통령과 의회는 이에 따라 대체법안 마련을 위해 절충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전비법안 마련이 계속 늦어질 경우 전장에 있는 미군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부시 대통령은 2일 오전 워싱턴 하원 의장, 리드 원내대표 등 의회 지도자들을 초청, 이라크 전비법안 마련에 대한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워싱턴=연합뉴스

으로 예상된다. 전비법안 마련이 계속 늦어질 경우 전장에 있는 미군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부시 대통령은 2일 오전 워싱턴 하원 의장, 리드 원내대표 등 의회 지도자들을 초청, 이라크 전비법안 마련에 대한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워싱턴=연합뉴스

아베 “미국에 사죄한 것 아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군대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자신의 미·일 정상회담 발언이 논란을 빚는데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지난달 27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위안부들에게 죄송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에 대해 국내외에서 “사과 대상이 잘못됐다”는 비판론이 제기된 바 있다.

미국에 이어 중동을 방문중인 아베 총리는 1일 카타르 도하에서 동행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위안부들

에 대한 나의 마음이 잘못 전달돼서 솔직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라며 “미국에 사죄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아사히신문과 도쿄신문은 29일 사설에서 “사죄 대상이 미국이나”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 한국을 방문중인 가토 고이치 자민당 전 간사장은 1일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등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대통령에게 사죄할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도쿄=연합뉴스

세계 도시인 보행속도, 10년전보다 10% 빨라져

세상이 각박해지면 걸음도 빨라지니 마라톤이 아닌, 삶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전세계 보행자들의 걸음이 10년 전보다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영국 더 타임스 인터넷판에 따르면, 세계 32개 도시 보행자의 보속을 측정한 결과 1994년 이래 평균 10%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조사결과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와 같은 기술진보

가 사람들을 조금하게 만들어 더 많은 활동을 하게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했다.

보속이 가장 빨라진 곳은 두드러진 사회, 경제적 변화를 경험한 중국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용’ 국가였다.

이들 국가의 보행자는 1990년대 초보다 20~30% 빨리 걷는 것으로 조사됐다. 싱가포르 보행자의 보속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우주여행중 비행사 죽는다면? 또는 섹스는?

30년내 화성 여행 현실화
美 NASA, 해답찾기 나서

왕복에만 3년이 걸리는 화성으로의 우주 여행중에 만일 우주비행사가 죽는다면 시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젊고 건강한 남녀 비행사들이 장기간의 여행중 자연스럽게 발산된 성욕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앞으로 30년후에 현실화될 화성 여행을 앞두고 미 항공우주국(NASA)은 지금까지 수일 내지 수개월 걸리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장기 여행에 대비하기 위한 ‘우주인 건강’ 계획을 만들고 있다고 AP가 1일 보도했다.

이러한 계획들은 사실상 화제로 올리기 편치 않은 이슈들이나, NASA의 의사, 과학자들은 외부 생명윤리학자, 의료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어 향후 수년내 해답을 갖길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섹스 문제는 건강계획에 포함돼 있지도 않고, NASA내에서는 오랫동안 금기시돼 왔다는 점에서 더욱 더 해답이 필요하다.

NASA의 건강의료 책임자인 리처드 윌리엄스 박사는 “우주에서의 섹스는 건강이 아닌 행동에 관한 문제라는 점에서 ‘건강 계획’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그러나 어떻게든 NASA내 다른 전문가들이 다뤄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2007년 10월 28일 시험 확정!!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격 가능

신바람 공인중개사CD 공인중개사 18회 시험 합격 해법!

합격을 책임질 명강사의 명강사!

시간절약, 금전절약의 황금찬스
족집게강의 동영상CD 풀세트 39장

385,000원
126,000원

특별사은품
기출문제(12~16회) CD 증정

- 민법 및 민사특별법 CD 7장
- 부동산학 개론 CD 6장
- 부동산 공법 CD 10장
- 2개월 분의 학원강의 수록
- 1개월이던 완전 마스터 가능
- 부동산 공법 CD 5장
- 중개법령 및 실무 CD 6장
- 부동산 세법 CD 5장
- CD 1강좌 40분 강의
- 교재 필요시 별도 구매 가능

●국민은행 / 예금주: 스미일 / 계좌번호: 417201-01-145079 ●각종 카드 결제 가능
연중 무료상담전화: 080-466-3030

●소자본 개업 가능 ●조기 명예퇴직 · 전직대비 ●여성의 경제적 독립기회 ●고소득 자유 직업

글로벌시대 요즘 뜨고 있는
중국어, 일본어, 영어는 필수!!

중국어+일본어+영어=125,000원 ⇒ **99,000원** (교재는 별도)

완전 100% 학원강의 동영상 강의
신바람 업그레이드 강좌 영어회화

동영상강의 CD
38,000원 *교재는 별도

중국어에 잘하는 방법!
요즘 중국어가 뜨고 있죠?
동영상강의 CD
48,000원 *교재는 별도

일본어를 배우려면
9가지의 벽을 넘으면 일본어 끝!
동영상강의 CD
39,000원 *교재는 별도

인터넷 쇼핑몰 **www.itscom.co.kr** NAVER 통합검색 **이츠컴** 검색

●공급원: (주)라레디앤피 ●국민은행 / 예금주: 스미일 / 계좌번호: 417201-01-145079
24시간 무료상담전화: 080-466-3030 (일요일, 공휴일 상담가능)